

03

최근 자살보도 주요 이슈,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언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1년 자살자 무려 13,352명, 한국은 지금 '뭉든지' 해야 하는 시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십수 년 간 세계 1위 수준을 기록 중인 우리의 자살률은 그동안의 숏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없이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문제이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약 42.2명을 기록할 정도로(자살예방백서, 2023), '심각하다'는 표현이 충분치 않을 만큼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 걱정되는 지표는 또 있다. WHO에서 발간된 <사망률 보고서>(Mortality Database)를 우리나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에서 50대, 70대에서 80대 국민 모두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 중이란 사실이다. 예전 노인층의 자살이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되며 전체 통계에 영향을 미친 시간도 있었으나, 이젠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의 극복과 개선을 위해,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부처들은 자살 예방 혹은 자살률 감소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가장 먼저 발족시킨 특별위원회는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였으며, 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문제를 다룬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다.¹⁾ 치명적인 만성병으로 굳어진 자살률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시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직간접 정책의 보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마련과 지자체별 위기대응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가동되고 있으며, 일련의 노력들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수렴되어 있다(자살예방백서, 2023). 자살론의 저자인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이 주장한 것처럼, '자살은 사회적 타살'임을 실제로 인지하며 자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적 해결책들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주체들의 전방위적 노력과 역할들 가운데, 각종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자살보도의 개선 또한 존재한다(유현재·송지은, 2012). 엄연한 사회현상인 자살을 기사로 만들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며,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도가 만들어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1) 박소연 (2023. 11. 25). "자살률, 사회의 연대/통합 대변...숫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봐야". <머니투데이>.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409583361143>

거나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물론 많다. 하지만, 선정성과 자극적 접근으로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거나, 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혹은 가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들도 존재한다(유현재, 2016). 본 글은 특히 최근 이뤄지고 있는 자살보도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가장 합리적인 자살보도의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짚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물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제언도 서술할 예정이다.

2. 디지털미디어와 연계된 자살의 증가...무차별적 보도의 일반화

언론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자살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을 수야 없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살,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극도로 상세하게 전하는 보도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미디어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신종 자살’과 해당 사건을 다루는 자살보도 이야기다.

필자는 얼마 전 자신의 자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사건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 자살률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비율로 따지면 하루에도 약 37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전송한 사건들은 기자와 미디어 연구자 양쪽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2023년 4월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여고생이 라이브 방송을 켜 채 투신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BJ 임블리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다수의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망자가 사용한 도구, 전후의 구체적 상황, 망자의 자세한 신원과 주변인에 대한 정보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명시된 주요 항목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생방송 자살’을 전파했다. 필자는 최근 발생한 엽기적 사건들이 일종의 ‘풍토병’ 같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자살이 우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IT 환경에 결합하며 너무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에, 안타까운 사회현상이 비극적으로 합해진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미디어 연계형 자살(Media Involved Suicides, MIS)’로 부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살로 보인다.

미디어 연계형 자살의 또 다른 형태도 관찰되었다.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남기는 방식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자살 전 육성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표예림 씨도 자살을 시행하기 전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마치 2013년 자신의 자살을 예고한 뒤 교량에서 투신한 고(故) 성재기 씨 사건에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에도 투신 장소에 카메라를 소지한 채 촬영에 몰두했던 언론, 너무나 세부적이며 사변적인 사항까지 적나라하게 보도했던 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사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까지 제정되어 언론계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유형의 자살이 등장하는 순간 거의 모든 언론은 자살의 상세 정보들을 앞다투어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다시’ 보였다.

미디어 연계형 자살을 너무나 자세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보도하는 행태는 더욱 큰 위험에 대한 선행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베르테르 효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미디어 연계형 자살’이 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후, 일반인들이 유사한 유형으로 자해를 시도한 소식도 전해진 상황이다.²⁾

우려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미디어를 가장 친밀하게 사용하는 계층, 즉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³⁾ 그동안 세계적인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던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엔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와 미디어 연계형 자살의 폭증, 나아가 상당수의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 상세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2) 이수민·박지현 (2023. 10. 31). ‘극단선택’ 생방송한 여고생...“친구가 위험” 신고로 구사일생(종합).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5216409>

3) 정익중 (2023. 10. 23). [국민논단] 청소년 자살마져 세계 1위 절대 안 된다. <국민일보>. URL: <https://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333>

3. 유서 공개를 망설이지 않는 무분별한 자살보도의 폭증

전 팝페라 가수 최성봉 씨가 2023년 7월 16일 사망했으며, 사인은 자살로 알려졌다. 그는 거짓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후원금을 받아 탕진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사망하기 전 유튜브(YouTube)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유서를 남겼는데, 당사자가 사망 직전 메시지를 남긴 이상 관련 정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예상대로, 다수의 언론은 그의 유서를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달했다. 언론의 유서 공개는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논의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던 영역이었다.

유서에 대한 비공개는 대체로 세 가지의 이유와 배경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망자에 대한 예의, 혹은 프라이버시 차원이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항목에서 보듯, 대체로 유서의 독자는 가족 구성원 혹은 밀접한 관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최성봉 씨의 경우 대중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명확했기에, 어느 부분까지 언론이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경은 유서에 의해 불특정 다수가 자살에 대해 공감하는 등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모방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다(유현재, 2023a). ‘사건’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시각으로 망자의 비극을 받아들이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는 언론이 일종의 ‘미필적 자살방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과 동일한 맥락이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한창현·유현재·정휘관·한택수·서영지 2018).

세 번째는,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유서 공개에 의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상실감과 무망감, 죄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시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왔다. 최성봉 씨의 경우, 그가 남긴 유서는 일부 언론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명확한 동의를 얻은 채 보도가 되었는지, 혹은 ‘다른 언론도 다들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필요마저 무시한 상황이었는지, 꼭 묻고 싶은 심정이다.

유서의 공개는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구체적 항목으로 명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



한 자세가 필요합니다(〈자살보도권고기준 2.0〉)”,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통해 주요 금기 사항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발생한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자살 사건에서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서를 ‘단독’이라며 공개, 유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자제했던 동료 언론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유서의 공개를 자살보도 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원칙으로 여기며 대체로 준수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망자들이 디지털 형태로 남긴 유서나 최후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일부 언론은 유서만으로 거의 분석 수준의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살보도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던 시절로 회귀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준엄한 지적과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믿는다.

4. ‘극단적 선택’ 쓰지 않고 ‘자살’ 용어로 돌아가려는 언론

2023년 11월 9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사건기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참여했으며, 필자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4.0: 합리적 권고기준의 미래 논의”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과 합리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단연 기자들의 질문과 주장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 중 하나는, 현재 다수 언론이 ‘자살’이란 용어 대신 사용하는 ‘극단적 선택’ 용어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다. ‘극단적 선택’이 언론계에서 사용된 계기와 경과는 필자가 작성한 글(유현재, 2023b)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결국 ‘자살’이란 용어의 대체어로서 무언의 합의와 함께 사용된 언론의 호의였다고 믿는다. 이 같은 노력은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핀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자살’이란 용어를 아예 지양함으로써 효과를 얻었던 사례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의 활용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언론인들은 더 이상 이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 예를 들어 <CBS>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PD는, 앞으로는 ‘자살’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극단적 선택’은, 자살이 마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미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자살’ 대신 다른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자살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자살’ 표현을 사용하자는 미국 예일대 나종호 교수(정신건강의학)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기자 세미나 현장에서도, ‘극단적 선택’은 자살보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대체 용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일부 기자들은 위 주장처럼 그냥 ‘자살’로 쓰면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또 다른 언론인들과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보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장의 경우, 언론보도에 ‘자살’을 사용하자는 것은 지난 십수 년 ‘자살’ 용어를 자제하기 위해 펼친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CBS> 권영철 대기자는 극단적 선택이나 자살이란 용어 대신, 가치 판단이 유보된 ‘사망’이나 ‘숨지다’ 등의 표현을

4) 최승영 (2023. 11. 10). “극단적 선택 표현, 자살률 감소 효과 없다는 게 학계 중론”. <한국기자협회보>. URL: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4644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괄적 합의가 가능한 결론이 나오기도 어렵고, 어쩌면 단일한 용어의 사용을 ‘의결’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자살보도 작성 시 모든 언론인이 고민할 법한 이 용어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 합리적인 자살보도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는다.

5. 숏폼과 유튜브가 동원된 ‘신종 자살보도’의 유행

앞서 MIS(Media Involved Suicides, 미디어 연계 자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가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형태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들이 대중에게 극도로 상세하게 전달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살보도를 통해 일종의 ‘교육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함께 대거 등장한 신종 자살보도의 유행이 있지 않을까 싶다. 숏폼(short-form)을 포함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의 급속한 유행과 AI에 딥페이크(deepfake)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애용 중인 유튜브 또한 연결되며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자살보도들이 셀 수 없이 등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올해 들어 자살로 사망한 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소식은 예외 없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자살의 동기와 전후 사정, 그리고 망자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망했으며, 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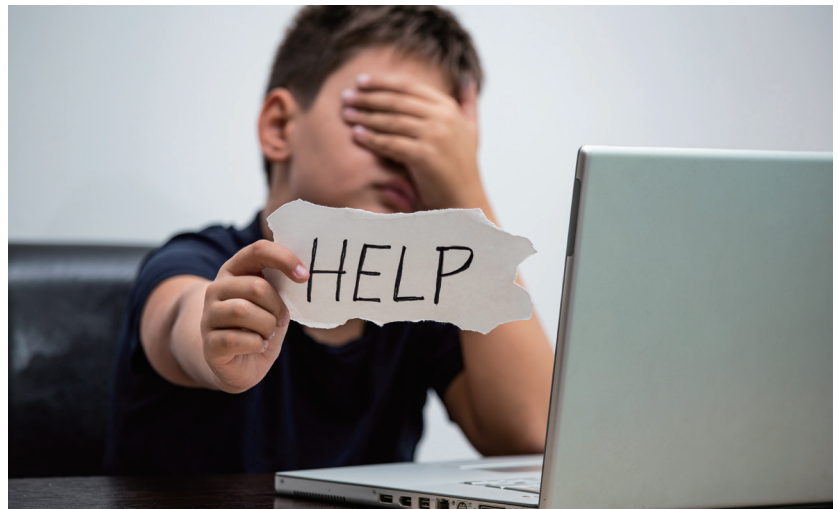
편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누구와 갈등이 있었고, 사망 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최후에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등 거의 일지 수준으로 정리해서 보도화한 것이다. 정보의 종류만 봐도 막대한데, 더욱 심각한 점은 일련의 정보를 담은 영상과 사진, 망자의 예전 모습과 CCTV 자료들이 재빠르게 편집되어 전 연령이 너무나 쉽게 접하는 숏폼 등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숏폼 콘텐츠들은 결국 사건의 전말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소재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반복적으로 소비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숏폼들은 사이버렉카⁵⁾를 포함한 유튜버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물론, 기성 언론이 만든 보도의 일부까지 활용하여 짧지만 파괴력 있는 콘텐츠가 되어 제한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숏폼을 만들거나 퍼다 나른 주체들을 ‘언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일부 언론사가 원천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활용해 숏폼이 재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에 자살보도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유튜브는 갈수록 고도화, 일반화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앱으로 등극해 있다.⁶⁾ 약 44%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으며 자살보도 또한 예외 없이 유통되고 있는 중이다. 합리적인 자살보도를 위한 논의에서 이제 유튜브와 유튜브가 만드는 다수의 부작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히 보인다는 뜻이다. 최근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여타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딥페이크, 메타버스(metaverse)와 가상 모델, 라이브 방송과 멀티 모달(multi modal) 등 주

5) 사이버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거짓 이슈를 만드는 악성 유튜버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 등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6) 최은수 (2023. 7. 26). **韓도 이미 구글전하...유튜브에 월 평균 970억분 쓴다.** <뉴스시스>. URL: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6_0002390936



요한 주제와 화두들이 또 다른 유형의 '신종' 자살보도와 연결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에 의한 유서가 떠돌고 더욱 생생한 라이브 방송으로 자살이 증계되며 AI가 더욱 자극적인 자살보도나 콘텐츠를 마구 만들어 퍼뜨리는 환경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제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보도로 제작하여 사회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의해 증폭되며 또 다른 자살에 기여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방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6. 무엇보다 언론인들의 적극적 노력 있어야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재정비를 포함하여 향후 언론(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권고기준의 새로운 방향설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다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을 만들자고 추천해 본다. 기존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대부분 항목들은 말 그대로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지침'의 형태였다. 물론 구체적인 항목을 어긴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란 자율적 용어가 쓰이긴 했지만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살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Not To-do-list' 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등장한 지 무려 20년이 경과한 시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제정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언론인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항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특위 정책 제안에서 비롯되어 최종 결정된 자살예방상담 통합번호 ‘109’를 모든 자살보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가능해 보인다는 뜻이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일부 자살보도들이 기사 말미에 포함하고 있는 “우울증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등의 메시지를 언론사의 판단에 의해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대중의 눈에 더욱 잘 띄게 배치해 달라는 권고 또한 해봄 직하다. 기사의 뒷부분이 아니라 기사의 시작 부분에 예방 메시지를 위치시켜 달라는 제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언론인들은 기사를 통해 대중의 인식과 시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특히나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이며, 웬만한 곳에서는 네트워크와 곧장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상당 부분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로 부와 지위를 점한 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필자는 현 미디어 환경을 근거로 ‘프레스 오블리제(Press Oblige)’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닐까 한다. 사회 내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아젠더 세팅(agenda-setting)은 상시로 발생하며, 현대에서 의제 설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은 단연 언론(인)이기 때문이다

다.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자살률 최고라는 위기까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인)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예전에 없던 자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전하는 자살보도 또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자살 관련 보도와 그 외 미디어 콘텐츠가 또 다른 자살에 대한 부추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유현재, 2013).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살보도들이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파악하여 논의함으로써, 최대한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자살보도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되길 간곡히 희망해 본다. 

참고 문헌

- 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살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pp.94-123.
- 유현재·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인터넷 신문과 전통적 신문의 차이 비교. <보건사회연구>, 32(2), pp.427-467.
- 유현재 (2023a). 자살 예방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예방 세미나>, 2023. 4. 28.
- 유현재 (2023b. 7). 자살보도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 적절할까? 죽음, 결코 선택의 대상 될 수 없어. <신문과 방송>.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pp.46-50.
- 유현재 (2016). 효과적, 현실적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위한 탐색적 연구(An Exploratory Study for Establishing More Realistic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on Suicides: A Case Study of S. Korea, Which Has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3), pp.158-178.
- 유현재 (2013. 9. 10). 묻지마 자살보도, 베르테르 효과 악순환. <더피알>. URL: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3>.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3 자살예방백서>
- 한창현·유현재·정휘관·한택수·서영지 (2018). 방송 뉴스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이 대학생의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7(1), pp.89-120.